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8월 2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글로벌도시기획과	담당자	• 글로벌협력팀장 한창현 ☎440-3481 • 담당자 곽초룡 ☎440-348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백서』 제작한다

- 재외동포청 신설 논의부터 유치·향후과제까지 전 과정 담아 10월 발간 -
- 공공기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사업에 기본 지침으로 활용 예정 -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전 과정이 책으로 기록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재외동포청 유치 과정과 성과를 담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백서」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된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지난 6월 5일 인천 송도에서 출범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신설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섰으며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재외동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8개월 간의 노력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백서에는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천명한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 8일 유치 확정 순간, 6월 5일자 재외동포청 출범까지의 전 과

정이 상세히 수록될 예정이며 재외동포청 유치 의미와 성공요인, 향후 과제 등도 담긴다.

인천시는 올 10월 백서를 발간해 군구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백서」가 공공기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등 유사사업 추진 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백서 발간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유치의 성공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인천시 공직사회에 동기를 부여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또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등 인천시가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